

조선초 巨濟縣의 복구와 治所 이동⁺

김 광 철*

<목 차>

- I. 머리말
- II. 조선초 거제현의 복구와 치소
- III. 거제현의 치소이동과 읍성
- IV. 맺음말

국문요약

가조현으로 이동했던 거제현은 조선 건국 후 세종 4년에 거제도도 복구되었다. 거제현을 복구하면서 치소로 삼은 곳은 거제도의 동부에 해당하는 수월리 지역이다. 수월리 치소에는 목책만 설치했을 뿐 성곽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거제현이 복구된지 3년만인 세종 7년 2월부터 치소 이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현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치소 후보지로 처음에는 고려시대 치소 지역이 거론되었으나, 현지 조사 후 사등리로 결정하였다. 이 곳은 주민의 거주지와 농토 밀집 지역이었고, 적선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어서 그 입지로 선정된 것이었다. 치소는 세종 8년에 이동되어 이곳에 둘레 2,510여 척, 높이 9척 규모의 읍성 사등성이 축조되었다.

오랜 시일이 걸려 치소 사등리를 중심으로 읍성을 축조하고 관아시설을 마쳤음에도, 문종 즉위년 10월부터 다시 거제의 치소를 이동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등성의 규모가 작아 주민들을 수용하는 한계가 있고 수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새 치소는 이전 고정부곡이었던 고정리로 결정되었다. 정분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이곳은 지세가 넓고 평평하며, 골짜기가 깊숙한 데다, 우물과 샘을 갖추고 있으며 경작지와 주거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교수

치소의 적지로 평가되었다.

치소 이동이 논의되기 시작하자 거제 주민의 반발도 있었으나, 정부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문종 1년(1451) 가을까지 치소 이동과 축성을 완료하기로 확정하였다. 새 치소의 읍성은 진주 등 인근 지역의 역부 2만여 명을 동원, 이 해 11월에 완공되었다. 이 고정리 읍성은 둘레 3,600여 척, 높이 13척의 규모에 성문과 옥사 40여 간을 갖추고 있어서 사등성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이처럼 세종 4년 거제현이 복구된 후, 그 치소는 수월리에서 사등리로, 다시 사등리에서 고정리로 이동되는 등 세차례의 치소이동이 있었다. 치소가 설정되는 곳마다, 목책이나 성곽시설, 관사와 부고 등이 설치되어 치소로서 행정시설을 갖추었다. 거제현이 복구된 후 그 치소는 모두 거제도의 동부 해안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조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제 지역사회는 주민의 분포, 재지세력의 근거지 이동, 행정과 교통망의 구축 등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거제현, 가조현, 치소, 읍성, 사등성, 수월리, 고정리, 정분

I. 머리말

고려 후기 거제현은 巨昌의 속현이었던 加麻縣으로 이동되었다. 거제 지역에서 발생한 삼별초 호응 봉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원종말에서 충렬왕 초에 강제 이동된 후 가조현 등에서 그 읍격을 유지하고 있었다.¹⁾ 거제현이 거제도로 복구 되는 것은 조선초의 일로, 거제현은 이동된지 1세기 이상 가조현 시기를 거친 셈이다.

거제현이 이동된 이후 거제도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이를 확인해주는 정보가 많지 않다. 고려말에 이르기까지 왜구의 침탈을 당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한동안 投化倭의 거류지가 되기도 하였다.²⁾ 조선 건국과정에서는 고려 왕족의 유배지로 정해지고 이들을 수장시킨³⁾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거제현의 복구가 늦어지게 된 것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려말 잦은 왜구 침입과 이에 따른 정부의 空島정책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⁴⁾ 늦었지만 세종초에 거제현이 복구되는 것은 꾸준히 주민이 다시 모여들고 있는 데다, 興利倭人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어서 였다. 이전의 왜구 대책을 空島정책으로 대응했다면, 이 시기는 海島개발과 군현 복구를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⁵⁾ 이것이 거제현의 복구를 가속화시켰다.

이제 이 글에서는 거제현이 거제도로 복구되는 시기와 그 과정을 검토하고 치소로 설정된 지역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치소 이동과정과 읍성의 축조 문제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거제현 복구 이후 거제 지역사회의 변화를 엿보고자 한다.⁶⁾

II. 조선초 거제현의 복구와 치소

1. 거제현의 복구 과정

거제현의 복구, 곧 가조현 지역에서 거제도로 주민과 치소를 옮기는 것은

1) 김광철, 「고려 후기 거제 지역사회의 변동과 거제현의 이동」, 『석당논총』 46, 2010.

2) 「巨濟南海縣投化倭 叛歸其國」(『고려사』 권 31, 세가, 공민왕 18년 7월 신축)

3) 「孫興宗等 投王氏于巨濟之海」(『태조실록』 권 5, 태조 3년 4월 20일 기축)

4) 강봉룡, 「한국 해양사의 전환-해양의 시대에서 해금의 시대로-」, 『도서문화』 20, 2002.

5) 신명호, 「조선초기 중앙정부의 경상도 해도정책을 통한 공도정책 재검토」, 『역사와 경계』 66, 2008.

6) 거제현의 복구에 대해서는 여말선초 교군의 운영과 관련하여 거제현의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바 있다. 윤경진, 「고려말 조선초 교군의 설치와 운영」, 『한국문화』 40, 2007.

조선 세종초의 일이다. 거의 150년 만에 복구가 이루진 셈인데, 복구가 늦어진 배경이 왜구의 침탈에 따른 정부의 空島 조치에 따른 것이라면,⁷⁾ 거제현의 복구는 정부의 공도 정책이 일단 완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도 조치를 철회할 필요성은 고려말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조운흥의 발언 속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 西海道都觀察使趙云伾, 將行上書曰, “…況我本朝, 水近倭島, 陸連胡地, 固不可以不虞也. 國界, 自西海, 歷楊廣·全羅, 至于慶尙, 海道, 幾二千餘里, 有水中可居之洲, 曰大靑·小靑·喬桐·江華·珍島·絕影·南海·巨濟等大島二十, 小島不可勝數. 皆有沃壤魚鹽之利, 今廢而不資, 爲可嘆已. 乞於五軍將帥, 八道軍官, 各給虎符金牌, 至于千戶百戶, 授以牌面. 仍以大小海島, 爲其食邑, 傳諸子孫, 則不惟將帥一身之富貴, 亦且子孫萬世, 衣食有餘矣, 誰不人人各自爲戰乎? 人人各自爲戰, 則戰艦自備, 兵糧自賚, 而爲遊兵, 無時擊之, 則賊不敢窺覷. 民得以富庶, 煙火相望, 雞犬相聞. 民獲魚鹽之利, 國無漕轉之虞, 祖宗土地, 復全於今日矣.” 昌, 下其書都堂.(『고려사절요』 권 33, 창왕 즉위년 9월)

조운흥은 위화도 회군 후인 창왕 즉위년(1388)에 서해도 도관찰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는 임지로 나가면서 상소의 형식으로 나라 안에 있는 島嶼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가운데 큰 섬으로 거제도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섬들이 토지도 비옥하고 수산물도 풍부한 곳인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섬들이 개발되어야 외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수산물의 이익을 얻어 나라는 조세 수납의 근심을 없앨 수 있고 토지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운흥의 도서 개발방식은 둔전 경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5군의 장수와 8도의 군관들에게 천호와 백호 등의 虎符金牌를 주어 도서의 크기에 따라 그 곳을 식읍으로 삼아 도서 개발을 추진하게 한 것이 그것이다. 장수와 군관의 소관 하에 도서 지역에 둔전을 설치 경영함으로써, 둔전민을 군인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함과 군량도 저절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도서 지역을 비롯한 연안 방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운흥의 상소는 도당에 보내져 의논을 거쳤을 터이지만, 그 실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건국 후 거제현 복구 과정에서 거제 지역에 營田이

⁷⁾ 강봉룡, 위의 논문.

설치되었던 것을 보면, 그의 건의는 현실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중앙 정부와 관료의 도서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거제현의 복구를 예상케 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조선초 왜구의 침입이 소강상태를 보이게 되자 민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발적으로 거제도도 유입하게 되면서 그러한 가능성은 가시화되어 갔다.

- 慶尙道水軍都節制使啓, “巨濟·南海二島, 倭賊往來之地. 近年以來, 賊變寢息, 因此, 人民避役于二島, 南海二百餘戶, 巨濟三百六十餘戶, 萬一有變, 則必爲所掠. 若不禁二島居民, 則當置守城軍, 以嚴守禦.”… 兵曹議曰, “二島之地, 膏腴可耕, 宜置木柵, 以庇農民.” 上從之, 仍命待豐年設木柵.(『세종실록』 권 1, 세종 즉위년 8월 19일 병신)

위 경상도 수군절제사의 보고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왜구의 침탈이 수그러들면서 거제와 남해 지역으로 들어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세종 즉위년(1418) 당시 거제에는 360여 호, 남해에는 200여 호나 유입되어 있었다. 세종 7년(1425)에 편찬되는 『경상도지리지』에 따르면 거제현의 호수가 123호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종 즉위년 당시 이 보다 3배나 되는 360여 호가 거제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규모의 호수는 고려말 이래 꾸준히 유입해 들어간 결과일 것이다. 수군절제사는 거제 지역의 인구 유입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수성군을 설치하여 엄중히 방어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대해 병조에서는 거제와 남해의 토지가 비옥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계속 거류하는 쪽으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목책을 설치하여 농민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왕이 이 논의를 받아들여 풍년이 드는 시기를 기다려 목책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거제현의 균형 회복은 가시화 되기에 이른다.

주민의 확충과 함께 토지 개간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거제, 남해, 창선 3도의 간전이 1,130여 결에 이르고 있었다.

- 慶尙道觀察使啓, “道內巨濟·南海·昌善三島, 墾田凡一千一百三十餘結. 附近各官人民, 多潛入耕稼, 如遇賊變, 被掠可畏. 乞今後禁民入耕.” 上王下政府·六曹, 與曾經慶尙道監司·水陸節制, 使備知形勢者議之. 遂命三島中田多處, 作木柵, 或築土城, 聽民持兵器入耕, 晝則候望應變, 夜則入城固守, 又令附近各梁兵船守護. 其田少處, 禁民入耕.(『세종실록』 권 7, 세종 2년 윤1월 27일 병신)

거제 지역에 간전이 다량 확보됨에 따라 인근 고을에서 농민이 모여들어 다투어 경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한 것은 이들 경작민이 왜구 등에 의해 노략질 당하는 것을 염려하여 이들의 토지 경작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상왕인 태종은 의정부와 6조에 명을 하달하여 이전에 경상감사와 수륙절제사를 지냈던 사람들과 이를 논의하도록 했고, 그 방안으로 경지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많은 지역은 목책이나 토성을 축조하여 주민 자치적으로 방비하는 한편 인근 포구의 병선으로 수호케 하였다. 그 경지가 적은 곳은 경작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거제 지역의 경우는 전자의 조치로 대응했을 것이다.

이처럼 거제도에 주민과 간전이 확보되면서부터 거제현의 복구가 가시화되었다. 거제현의 복구가 정부차원에서 언제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다음을 보면 그것이 세종 1년 봄부터 시작된 것 같다.

○ 己亥春, 兩殿【太宗·世宗】出神策, 徙巨濟於水內本土. 吾以禮曹參判主掌施行, 厥後爲監司, 親承指命... (『敬齋先生文集』 권 1, 詩, 賀寄李兪樞)

경상도관찰사 재임시 『경상도지리지』 찬술을 주관한 바 있는 河演은 李兪樞, 즉 李好誠이 거제현령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는 시를 보내면서 위와같은 詩題를 남기고 있다. 기해년 봄, 즉 세종 원년 봄에 상왕인 태종과 세종이 훌륭한 계획을 내어 거제현을 ‘水內本土’ 곧 거제도로 옮기기로 결정했으며, 자신이 예조참판으로서 이를 주관한 바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위 시는 하연의 遺墨으로도 전하고 있어서 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는 당시 예조참판으로서 거제현을 복구하는 데 일정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제현의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화하고, 복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을 담당했는지 모른다.

세종 원년 봄에 거제현의 복구가 결정되었지만, 즉시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해 여름부터 대마도 정벌이 시작되었고, 거제도가 그 전진 기지로서 역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제현의 복구 조치는 일정 기간 유보될 수밖에 없었을 것

『即命以長川君李從茂爲三軍都體察使, 將中軍, 以禹博·李叔畝·黃象爲中軍節制使, 柳濕左軍都節制使, 朴礎·朴實左軍節制使, 李之實右軍都節制使, 金乙和·李順蒙右軍節制使, 將慶尙·全羅·忠清三道兵船二百艘, 下番甲士·別牌·侍衛牌及守城軍營屬才人·禾尺·閑良·人民·鄉吏·日守·兩班中, 有能騎船者及騎船軍丁等, 以邀倭寇還歸之路. 約以六月初八日, 各道兵船, 並集見乃梁以待.』(『세종실록』 권 4, 세종 1년 5월 14일무오). 「是日巳時, 李從茂自巨濟南面周原防浦發船, 復向對馬島.」(『세종실록』 권 4, 세종 1년 6월 19일 임진).

이다. 그러나 세종 2년 말로 접어들면서 거제현의 복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던지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것은 거제에 이미 설치되었던 營田의 경작을 독려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 上王命兵曹曰 “倭奴必不順服, 巨濟營田, 不可不耕. 其令觀察使·右道水軍都按撫使同力備農器. 且前命諸道加造兵船, 今聞諸道飢饉, 其勿督促, 只令當領水軍造之.”(『세종실록』 권 10, 세종 2년 11월 26일 경인)

즉, 남해 연안에 들어 와서 경작, 어로, 소금 생산을 벌이고 있는 對馬倭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⁹⁾ 거제현의 복구를 서둘러야 했다. 그래서 경상도 관찰사와 우도수군도안무사가 함께 농기구를 준비하고 병선을 제작하여 거제의 영전 경작을 독려하였다. 거제도에 설치된 영전 경영의 속개는 곧 거제현의 복구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1년 여의 기간이 걸려 세종 4년(1422)에 가서 복구가 완료되었다.

- 柳廷顯等同議啓曰, “巨濟古縣人民及在前往來耕田沿邊州郡之民, 并令移入島內, 革其營田, 分給耕稼, 蠲免租稅. 又令兵船六十六艘守禦.” 從之.(『세종실록』 권 15, 세종 4년 2월 25일 임자)
- 慶尙道監司崔士康啓 “巨濟新徙之民, 穀種口糧未能轉輸, 將失農業, 誠爲可慮. 請以右道水軍營田所出分給, 使不失時, 待秋還收, 以爲後日其島還上賑濟之備.” 從之.(『세종실록』 권 16, 세종 4년 4월 4일 경인)
- 慶尙道觀察使啓, “巨濟島斗入海中, 防禦甚緊, 請以才兼文武者爲縣守.” 從之.(『세종실록』 권 18, 세종 4년 12월 10일 계사)
- 戶曹據巨濟縣人民等狀告條件啓, “一. …歲在壬寅, 復置巨濟縣, 還其寓居居昌人吏十五名·官奴婢三十餘名, 溟珍人物, 尙屬江城而不復. 由是, 巨濟縣人物數少, 不堪其役. 請還溟珍人物于本縣…”(『세종실록』 권 35, 세종 9년 1월 13일 임인)

거제현의 복구가 세종 4년 어느 시기에 완료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이 해 2월에 거제 지역에 이전부터 거주했거나 인근 지역에 살면서 왕래하며 거제의 토지를 경작했던 사람들을 모두 거제에 들어가 살도록 하여 그 주민을

⁹⁾ 上王曰 “…吾欲遣水軍都節制使, 大備兵船, 聚于巨濟等處要害之地, 使對馬島倭不得耕田·捕魚·煮鹽, 則必與小二殿請降, 如其不降, 則令諸將, 更迭入攻可也.”(『세종실록』 권 10, 세종 2년 10월 21일 병진)

확정한 다음, 둔전을 주민들에게 분급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조치¹⁰⁾를 취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 사실상 복구 조치가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거제도에 체류하고 있는 주민을 안집시키고 행정을 수행할 치소의 시설을 갖추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며, 이어서 가조현에 있었던 향리와 수령, 그리고 행정요원을 거제도로 배속시키는 절차를 거쳐 복구가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가조현으로부터 귀환한 인원은 소규모였던 것 같다. 뒤날 거제현 인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때 人吏 15명과 관노비 30여 명만 귀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해 12월 정부는 거제현의 수령을 문무 겸비자로 선정한다고 하여 거제현령의 지위까지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거제현의 복구는 일단락되었다. 오양역도 세종 7년 8월 경에 복구되었으나,¹¹⁾ 영선현으로 이동했던 명진현의 주민은 아직 귀환하지 않은 상태였다. 명진현의 복구는 세종 9년 1월 어느 시기에 가서야 가능했던 것 같다.¹²⁾

2. 水月里 치소의 설정과 속현의 직촌화

세종 4년 거제현이 복구될 당시 치소는 이전 고려시대 치소였던 둔덕기성이 아니라, 그 동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深浦의 水月 평이었다.

- 戶曹據巨濟縣人民等狀告條件啓, “...一. 壬寅年復立之初, 於深浦水月平, 以各浦船軍, 設木柵, 暫立官舍. 丙午春, 更相沙等里移邑, 始築城郭.”(『세종실록』 권 35, 세종 9년 1월 13일 임인)
- 先是, 巨濟縣人上言, “本邑, 舊在島內水月里, 設木柵.”(『문종실록』 권 7, 문종 1년 5월 6일 계묘)

거제현이 복구된 후 그 치소는 이전 고려시대 본현인 거제현에서 벗어나 고정부곡의 동쪽에 자리잡았다. 치소가 위치한 수월평 또는 수월리, 수월포리는

¹⁰⁾ 거제현이 복구된 후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감세 조치는 세종 5년 8월에 구체화 되었다. 호조에 서 건의한 형태로 추진된 감세 조치는 六典에 의거하여 첫째는 전부 면제하고, 다음 해에는 반만 거두고, 3년 이후에는 전부를 거두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실록』 권 21, 세종 5년 8월 2일 경술.

¹¹⁾ 「復立巨濟縣烏壤驛, 從知縣事孫以恂之請也. 初自固城松道驛至巨濟縣七十里, 至玉浦、永登各浦, 又加濶隔, 松道之馬多困斃, 故置此驛.」(『세종실록』 권 29, 세종 7년 8월 17일 계미)

¹²⁾ 세종 18년 2월 吏曹의 다음과 같은 보고에 의하면, 명진현은 이 때 이미 거제도로 복구되어 있었다. 「吏曹啓, 珍城縣本稱江城, 因倭失土, 以其屬縣丹城及溟珍縣, 合爲珍城. 今溟珍已移屬巨濟, 而仍號珍城, 名實相違, 請改稱丹城.」(『세종실록』 권 71, 세종 18년 2월 4일 경자)

조선시대 면리제 하에서 고현면의 소속 리가 되고 있는데,¹³⁾ 현재의 신현읍 수월리에 해당한다. 치소를 이곳으로 삼은 것은 폐현된 후 이전 치소인 둔덕면 일대가 황폐화되었거나, 여말선초 거제도도 주민이 복귀할 때 이곳에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마도 정벌때 정벌군의 집결지와 출발처가 見內梁과 거제 남쪽의 周原防浦였던 것으로 보아,¹⁴⁾ 옛 치소 지역은 군사 거점 지역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같이 선택했을 수도 있다.

새 치소에는 아직 성곽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다. 성곽 시설을 갖추기에는 시일이 촉박했던지 거제 각 포의 선군을 동원하여 목책을 설치하고¹⁵⁾ 임시 官舍를 건립하는 것으로 일단 치소 시설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점에서 수월리의 치소는 한시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곧 새로운 치소의 확보와 성곽 시설을 갖추어야만 했다.

한편, 거제현의 복구되는 과정에서 그 속현과 부곡제 지역은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폐현이 되어 直村化의 길을 걸었다.

- 古屬縣三, 溟瑠·鵝洲·松邊. 溟瑠人物徙陸, 今合屬江城, 稱瑠城縣. 鵝洲·松邊, 人物亡. 部曲三, 河清·竹吐·古丁, 鄉一, 末近谷, 莊一, 鍊汀, 人物皆亡. 驛二, 新驛·烏壤, 今皆亡. (『경상도지리지』 거제현)
- 鵝洲縣, 本巨老縣, 景德王改今名. 松邊縣, 景德王改名南垂. 皆爲巨濟郡領縣, 高麗改南垂復舊名, 仍爲任內. 二縣人物皆亡, 今爲直村.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거제현)

세종 7년(1425) 『경상도지리지』 편찬 당시, 거제현의 속현인 아주현과 송변현, 그리고 하청부곡 등 부곡제 지역은 ‘人物皆亡’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해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今爲直村’이라 하여, 독자적 행정단위가 되지 못하고 거제현의 直村으로 변모했음을 전해주고 있다. 명진현의 동향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경상도지리지』 편찬때까지 아직, 거제현으로 복구되지 않고 진주의 속현으로 유지되면서 강성현과 통합되어 진성현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종 9년 이후 명진현도 거제도도 복구하는데,

13) 『호구총수』 제8, 경상도 거제.

14) 「即命以長川君李從茂爲三軍都體察使, …約以六月初八日, 各道兵船, 並集見乃梁以待.」(『세종실록』 권 4, 세종 1년 5월 14일무오). 「是日巳時, 李從茂自巨濟南面周原防浦發船, 復向對馬島.」(『세종실록』 권 4, 세종 1년 6월 19일 임진)

15) 기록상으로는 목책만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수월리 석성은 조선시대 축조된 체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목책과 동시에 석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봉근, 「거제도 성지」, 『석당논총』 31, 2002, 73~74쪽.

이후 명진현의 동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명진현도 ‘溟珍廢縣’으로¹⁶⁾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속현과 마찬가지로 직촌화되었던 것 같다. 다만, 오양역의 경우 세종 7년 8월 거제현 知縣事 孫以恂의 요청에 따라 복구되어¹⁷⁾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거제현은 그 속현과 부곡제 지역이 대부분 해체되어 직촌화하는 변화를 겪으면서 거제도로 복구되었다.

Ⅲ. 조선초 거제현의 치소 이동과 읍성

1. 沙等里 치소와 사등읍성

거제도 심포 수월평 지역을 치소로 설정하여 복구된 거제현은 세종 7년(1425) 2월부터 새 치소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군현이 복구된지 3년만의 일로, 경상도 감사와 경차관 이자직의 보고에 근거하여 병조에서는 거제현의 치소 이동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다.

- 兵曹啓, 謹將慶尙道監司及敬差官李自直所啓, 道內巨濟縣移設及本縣守護加定便否, 曹與政府·諸曹同議, 條列以啓. 一, 今巨濟縣治所, 誠爲不可. 農場狹隘, 人物不得聚居, 地卑水潤, 三面山壓, 難於守護. 又沉賊船易入, 變在不測. 因此, 人物不得安心, 朝夕難保, 殆非長久之地也. 唯古邑地形, 可以置邑, 非唯農圃之場廣且膏腴, 倭賊亦不得突入, 人物聚居, 實有利益. 請於今年秋節, 築城移縣. … 命依議得施行.(『세종실록』 권 27, 세종 7년 2월 27일 정묘)

수월리 현 치소의 문제점으로는 농토가 협소하여 인물이 모여살기 어렵다는 점, 저지대여서 수해를 당하기 쉽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 직선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 언제 변란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朝夕難保’로 표현했듯이 사람들이 안심하여 거주할 수 없어 더 이상 치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병조에서는 그 대안으로 수월리 치소 대신에 古邑 즉 고려시대 치소였던 곳을

¹⁶⁾「溟珍廢縣…元宗朝, 避倭出陸, 僑寓晉州永善縣. 本朝恭靖王朝, 合于江城縣, 稱珍城. 世宗朝, 還本島後來屬」(『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2, 경상도 거제현 고적)

¹⁷⁾「復立巨濟縣烏壤驛, 從知縣事孫以恂之請也. 初自固城松道驛至巨濟縣七十里, 至玉浦·永登各浦, 又加壆隔, 松道之馬多困斃, 故置此驛」(『세종실록』 권 29, 세종 7년 8월 17일 계미)

제시하고 있다. 이 곳은 농토가 넓은 데다 비옥하고 왜적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지세임으로 이곳에 성곽을 축조하고 치소를 옮기자고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왕은 논의하여 시행하라고 함으로써 치소 이동이 가시화 되었다.

치소 이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정부는 경차관을 거제도로 파견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8개월 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되었다.

- 敬差官許誠啓, “臣與慶尙道監司·都節制使入巨濟島, 看審邑城可當之地. 沙月浦, 人民所居各里不遠, 如有賊變, 易以聚會入堡, 賊船隱泊諸島隔遠, 人民農場亦近, 可作邑城, 以奠民居.” 從之.(『세종실록』 권 30,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경차관 허성은 경상도감사, 도절제사와 함께 거제도로 들어가 새 치소와 읍성의 적지를 물색하였다. 그 결과, 전에 논의했던 고려시대 치소와는 달리 沙月浦가 제시되었다. 이 곳은 주민들의 거주처와 멀지 않아, 적변이 있을 때 쉽게 入保할 수 있고, 적선이 정박할 가능성이 있는 섬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농토가 가까이에 펼쳐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邑城을 축조하여 치소로 삼을만 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새 치소의 위치는 사월포로 결정되었다.

사월포로 치소가 결정된 후 이곳으로 이동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병오년 즉 세종 8년 봄에 치소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치소 후보지를 결정한지 6개월 이내에 치소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 戶曹據巨濟縣人民等狀告條件啓, “…丙午春, 更相沙等里移邑, 始築城郭. 然客舍·公衙·國庫·官廳, 以新徙不多民力, 數年之內, 難以造成. 請以近處各浦船軍及各官軍人, 不多日役之營繕.”…命下政府六曹議之, 僉曰“田稅之事, 則依啓施行, 其餘三條, 令其道監司商度啓聞, 更議區處.” 於是, 監司啓“上項巨濟人民狀告之事, 請一如所言…” 又下政府六曹議之, 僉曰“如啓施行.” 從之.(『세종실록』 권 35, 세종 9년 1월 13일 임인)
- 先是, 巨濟縣人上言, “本邑, 舊在島內水月里, 設木柵. 去丙午年, 移于沙等里, 建設館舍, 修築城池之功, 至戊辰年, 乃訖.”(『문종실록』 권 7, 문종 1년 5월 6일 계묘)

치소는 사월포 사등리로 이동되었지만 읍성의 축조와 치소의 시설을 확충

하는 데는 좀더 기간이 필요했다. 읍성의 축조와 객숙·公衙·國庫·官廳 등 치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거제현 내 주민의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쉬운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세종 9년 1월에는 거제현민들의 요청에 따라 호조가 인근 각 포의 선군과 군현의 군인을 동원하여 축조하고 시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도 시설을 마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 같다. 문종 1년 거제현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관청 시설과 읍성 축조가 무진년 즉 세종 30년(1448)에야 완료되고 있기 때문이다.

- 邑石城, 周回三百二十一步.(『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거제현)
- 古縣, 沙等里, 石築, 無井泉.(『경상도속찬지리지』 거제현 읍성)
- 古縣城, 在縣西十七里. 石築, 周二千五百一十一尺六寸, 高九尺.(『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2, 경상도 거제현 고적)
- 古縣城, 在縣西十七里. 石城, 周二千五百十尺, 金皆頽圯. 本朝文宗時, 爲縣乏水泉, 遣贊成鄭某, 擇地移邑, 卽今治, 其地稱爲古縣城.(『동국여지』 권 4하, 경상도 거제현 고적).
- 古縣城, 卽沙等城, 在府北二十里. 石城, 周二千五百一十一尺六寸, 高九尺.(『여지도서』 경상도 거제부 고적)

새 치소의 읍성인 沙等城의 규모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둘레 321보,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는 고현성이라는 이름으로 둘레 2,511척 6촌, 높이 9척으로 되어 있다. 우물 시설 등은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문종 즉위년(1450) 도체찰사 鄭某의 조사에 따르면 그 규모가 1,916 척으로 되어 있어¹⁸⁾ 지리서의 규모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읍성은 海子도 갖추고 있었지만, 경상우도병마절제사 신숙청의 보고에 따르면 ‘窄狹低微’라 하여¹⁹⁾ 둘레가 좁고 성벽이 낮은 등 규모가 크지 않아 주민 수용에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우물 등이 시설되지 않아 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었다.²⁰⁾ 이것이 다시 치소의 이동을 부르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동국여지』에서는 이 성이 물과 샘이 모자라 문종때 읍치를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곳을 고현성이라 부르게 된 연유를

18) 「都體察使鄭某馳啓, “臣審巨濟邑城, 周回一千九百十六尺. 初不依法造築, 低微窄狹, 必須改築, 而後一島之民, 可得入保.”(『문종실록』 권 4, 문종 즉위년 10월 28일 무술)

19) 「慶尙右道兵馬節制使辛倣晴啓, “今審巨濟邑城及海子. 邑城則改築而增東北一千餘尺, 誠爲萬全之計. 然雖窄狹低微, 時不頽圯, 請勿改築. 海子則宜令改鑿.”(『문종실록』 권 3, 문종 즉위년 9월 2일 계묘)

20) 「世宗卽位之五年壬寅, 巨濟之民, 願還本土, 命築城郭, 奠厥民居, 設守護, 以禦其侮. 然流民悉集, 城小而無以容, 且乏水泉.(『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2, 경상도 거제현 성곽조 소제 이보흠기문)

기록하고 있다.

2. 古丁里 치소와 거제읍성

오랜 시일을 걸쳐 치소 사등리를 중심으로 읍성을 축조하고 관아시설을 마쳤음에도, 또 다시 거제의 치소를 이동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사등성의 증축 논의와 맞물려 제기되었다. 문종 즉위년 10월 경상우도병마절제사 신숙청의 보고가 치소 이동 논의에 불을 붙였다.

- 慶尙右道兵馬節制使辛倣晴啓, “今審巨濟邑城及海子. 邑城則改築而增東北一千餘尺, 誠爲萬全之計. 然雖窄狹低微, 時不頽圯, 請勿改築. 海子則宜令改鑿.” 令兵曹議之, 議啓曰, “倣晴所啓, 前後牙盾, 無有定論. 況海島居民, 專賴城郭, 以保其生, 須擇地堅築, 乃禦外侮. 請令巡察使, 審視便否, 定其城基.” 從之. (『문종실록』 권 3, 문종 즉위년 9월 2일 계묘)

신숙청은 사등성에 대해, 해자를 갖추고 있는 이 읍성을 1천여 척 정도 증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게 무너질 정도가 아니니 개축할 필요는 없고 해자는 개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숙청이 이같이 보고한 것은 개축하는데 따른 주민의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신숙청의 이같은 보고에 대해 병조가 반발하였다. 병조에서는 신숙청의 보고가 모순되고 정론이 없다고 공박하면서, 해도의 주민들에게는 適地에 견고한 성곽이 있어야 외침을 방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순찰사로 하여금 다시 조사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하여 성터를 정하자는 주장으로 보아 읍성의 移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왕은 병조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

거제 사등성에 대한 조사는 즉시 이루어졌다. 조사자는 당시 성곽 전문가이기도 한 도체찰사 鄭芑이었다. 그는 1개월여 만에 다음과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 都體察使鄭芑馳啓, “臣審巨濟邑城, 周回一千九百十六尺. 初不依法造築, 低微窄狹, 必須改築, 而後一島之民, 可得入保. 臣觀古丁部曲, 地勢寬平, 洞壑深密, 且有井泉, 可耕可居之地頗多. 請移邑城於此, 將以明年十月造築爲便. 且永登浦與玉浦, 相距遙隔, 不得通望, 居民晝夜布野耕農, 而倭人常相經過往來, 正是要害之地. 請於兩浦之間, 栗

浦設木柵, 抽永登船軍二十·玉浦三十, 使兩浦軍官一人領之, 遞相往戌. 又知世·吾兒兩浦之間, 勿士浦道途, 亦遙遠險阻. 儻倭賊乘夜剽竊, 則勢不相聞, 亦難於追逐. 請於兩浦之中, 助羅浦, 以知世兵船二艘·吾兒三艘, 分泊守禦, 令處置使軍官一人領戌.” 從之. (『문종실록』 권 4, 문종 즉위년 10월 28일 무술)

정분은 사등성의 규모가 1,916 척이며, 규격에 맞게 축조되지 않아 ‘低微窄狹’, 즉 성벽이 낮고 성터가 좁기 때문에 반드시 증축해야 거제 주민이 入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치소의 이동을 제안하였다. 정분의 의도는 사등성의 증축보다 치소의 이동과 새 읍성의 축조에 있었다. 정분이 제안한 새 치소는 古丁部曲, 즉 고정리였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은 지세가 넓고 평평하며, 골짜기가 깊숙한 데다, 우물과 샘을 갖추고 있으며 경작지와 주거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치소로서 적지라는 것이다.

정분은 이곳으로 치소를 옮길 경우, 그 보완책으로서 영등포와 옥포 사이 율포에 목책을 설치하여 방수케 하고, 지세포와 오아포 사이에 있는 조라포에 병선을 주둔시켜 방수케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정분은 다음해 10월로 기한을 정하여 축성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못박음으로써 치소 이동을 기정 사실화 시켜 나갔다.

치소 이동에 대한 논의가 결정된 후, 경상우도도절제사 辛修晴 등은 조속한 읍성 축조를 건의하기도 했으나,²⁷⁾ 거제현민들 가운데는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 先是, 巨濟縣人上言, “本邑, 舊在島內水月里, 設木柵. 去丙午年, 移于沙等里, 建設館舍, 修築城池之功, 至戊辰年, 乃訖. 今因都體察使鄭某審定, 又欲移于古丁里. 本邑人吏官奴婢, 已皆土著阜盛, 今使移邑, 則營繕無窮. 願勿移設, 以安民生, 如不得已, 則出陸移居, 以圖長久.” (『문종실록』 권 7, 문종 1년 5월 6일 계묘)

거제현 주민들은 그동안 치소의 이동이 몇차례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향

27) 『先是, 慶尙道右道都節制使辛修晴啓 “道內玉浦·甘浦·永登浦·山達浦, 乃倭賊首先到白之處, 請擇要害之處, 設木柵, 又移設巨濟鎮于中央, 使之防戍.” 觀察使又啓 “慶州水災可慮, 請用軍人二萬, 造山開川, 以備水患” 至是, 都體察使鄭某, 巡審各浦要害處及慶州山水形勢, 以啓. 上曰 “設木柵及移設巨濟, 則時方農務, 當俟秋成. 慶州之役, 與其動衆, 造山開川, 莫若遷邑, 更議以啓.”』 (『문종실록』 권 6, 문종 1년 3월 22일 신유)

리와 노비들이 이제야 도착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다시 치소를 옮긴다면 營繕이 끝이 없어 민생을 해칠 것이라 주장했다. 이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출륙하여 移居케 하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국왕 주재로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의정부에서는 10월부터 치소를 이동하고 읍성을 축조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왕은 사등성의 관사와 성지가 完固하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한 후, 치소 이동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볼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참찬 安崇善은 을축년, 즉 세종 27년(1445)에 순찰사로서 순행하다가 사등성을 둘러 보았는데, 읍성이 지세가 낮고 바다 어귀에 가까이 있어서 患難을 당할까 걱정했다고 하면서 옮기되 시간 여유를 가지고 치소를 이동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의정 河演, 좌의정 皇甫仁, 우의정 南智, 좌찬성 金宗瑞 등은 추수를 기다려 예정하고 있는 성터 안의 水源과 산의 형세를 다시 살펴서, 만약 옮겨서 얻는 편리함이 옛 성보다 갑절이면 옮겨 쌓게 하자는 신중론의 입장을 취했다.

논의를 청취한 후 문종은 읍성을 옮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당장 올해 가을부터 축성 작업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2,3년 늦출 것인지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거제도가 외적이 들어오는 길목에 있어서 긴급하기 때문에 가을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이렇게 해서 치소이동과 읍성 축조가 결정되었다.²²⁾

논의가 종결되자 국왕은 정분을 불러 축조 개시 시기 등을 협의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상도 지역 당해년 田品 조사 방식을 바꾸는 등²³⁾ 거제현의 치소

22) 이상의 논의 과정은 『문종실록』 권 7, 문종 1년 5월 6일 계묘조에 상세하다. 「至是, 議政府據兵曹呈啓, 都體察使啓本內, 古丁部曲, 寬平谷密, 泉井有餘, 可耕可居之地, 甚多. 且當各浦中央, 要衝之地, 宜於此置邑」已曾啓下, 令自十月, 始移邑築城. 今邑人上言, 請勿聽理.” 上曰 “今邑城在北邊一隅, 當初審定之時, 無乃別有深意乎? 館舍城池, 亦皆完固, 姑仍舊何如?” 令政府更議. 右參贊安崇善以爲 “臣於乙丑年, 以巡察使, 行到巨濟, 目擊邑城地勢卑下, 濱於海口, 被患可畏, 移設之議, 誠是. 今更思之, 永登玉浦, 知世浦, 右道水營環島列鎮, 共爲犄角, 固城唐浦, 亦在相望, 大變不能遽起. 臣意以爲, 殿下初即位數年之間, 務要安靜, 然城郭不可不完, 但量其緊緩, 先築緊處之後, 移此邑城, 亦未晚也.” 領議政河演·左議政皇甫仁·右議政南智·左贊成金宗瑞以爲 “城內水泉甚少, 引流城外而貯之. 請俟秋成, 更審今所定城基內泉源山形, 若其移設之利, 倍於舊城, 則移築.” 上曰 “沙等里邑城, 泉井不足, 賊若曠日持久, 則奈何? 今不改築則已矣, 若改築則宜移古丁里. 予意已定, 須於今秋, 汲汲移設乎? 姑停二三年, 漸次移設乎? 更議以啓. 僉議啓 “巨濟在海島, 正當賊程始面, 極爲緊要, 今秋移築爲便.” 上從之.

23) 「上引見右贊成鄭某于思政殿, 議築棘城及結城·巨濟·康津等官邑城. 遂傳敎承政院曰 “今年當審慶尙道田品, 若築巨濟城, 則兩事不可並舉, 除別遣朝官, 令各官守令, 各審境內之田分九等以

이동과 읍성 축조에 박차를 가했다. 고정리 거제읍성이 축조되는 과정은 다음 李甫欽의 기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 世宗卽位之五年壬寅, 巨濟之民, 願還本土, 命築城郭, 奠厥民居, 設守護, 以禦其侮. 然流民悉集, 城小而無以容, 且乏水泉. 今我主上殿下, 命議政府右贊成晉陽鄭相公棻, 相陰陽, 觀水泉, 乃移治于舊居之南十里許. 北臨大海, 三面阻山, 原隰寒泉, 可以永建乃家. 於是, 悉召下道民二萬餘夫, 使永川郡使鄭次恭·晉陽判官楊淵·昆陽郡使崔性老·清道郡使李椅·泗川縣監張俁·鎭海縣監金漢珍, 分監其役. 又使縣令李好誠, 立官舍府庫. 於是, 遠近畢會, 各盡乃心, 城三千六百有餘尺, 屋四十有餘間, 不閱月告成.(『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2, 경상도 거제현 성곽조 소재 이보흠기문)

사등성에서 고정리로 치소를 이동하고 새 읍성을 축조하게 된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등성의 규모가 작고 수원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사등성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진 고정리 새 치소는 북쪽으로 大海가 열려 있고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넓은 들과 산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적지로 평가되었다.

읍성의 축조에는 2만여 명의 役夫가 동원되었다. 이들은 영천·진주·곤양·청도·사천·진해 등지에서 차출되었으며, 그곳 수령들이 나누어 감독하여 축성하였다. 거제현령 이호성은 관사와 부고를 건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해서 몇 달이 걸리지 않아 둘레 3,600여 척의 성곽과 40여 간의 屋舍를 갖춘 읍성이 문종 원년(1451) 11월 말에 완공되었다.²⁴⁾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²⁵⁾

- 邑城, 辛未年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二尺, 井泉三, 池二, 冬夏不渴, 有軍倉(『경상도속찬지리지』, 거제현 읍성)
- 邑城, 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三泉二池(『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2, 경상도 거제현 성곽)
- 縣城, 石築, 周三千六百三十八尺, 高十三尺, 有門. 城內有三泉二池.

聞, 無乃可乎? 若遣朝官, 則當遣幾人? 已令鄭贊成, 議諸政府, 卿等亦宜知之.”(『문종실록』 권 8, 문종 1년 6월 25일 임진)

²⁴⁾ 「是月, 築慶尙道巨濟縣城」(『문종실록』 권 10, 문종 1년 11월 30일 갑자)

²⁵⁾ 이 성곽과 성터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이 참고된다.

심봉근, 「거제 고현성지연구」, 『석당논총』 17, 1991.

이일갑, 「거제 고현읍성연구」, 『석당논총』 37, 2005.

魯山初築.」(『동국여지』 권 4하, 경상도 거제현 성곽).

- 古縣城, 在府東北二十里. 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一泉一池.(『여지도서』 경상도 거제현 성지)
- 古縣城, 在府東二十里.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一泉一池.(『거제부읍지』 성지)

읍성의 둘레는 3,038척과 3,638척 등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동국여지』의 기록은 이보흙의 기문에서 3,600여 척이라고 한 사실을 감안하여, 『경상도속찬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와 『거제부읍지』는 『승람』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만, 『동국여지』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다. 읍성의 높이는 12-13 척이었으며, 문이 시설되어 있었고 그 안에 우물이 3곳, 못이 2곳 설치되어 있어 여름과 겨울철에도 마르지 않았다고 하며, 군창 등 각종 옥사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읍성이 완공될 때, 海子는 굴착되지 않았던 것 같다. 단종 즉위년(1452) 8월 도체찰사 정분은 이미 축성한 곤양·동래·기장·고성·거제성에 해자를 파지 않았다고 하면서 해당 고을에서 굴착할 것을 건의했고, 국왕도 이를 재가하였다.²⁶⁾ 단종 1년 8월에 金淳을 경상도로 보내어, 거제성의 축성을 감독케 했다고 하는데,²⁷⁾ 이는 해자 굴착을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여지』에서 이 읍성의 축조가 단종초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한 것은 해자 굴착까지 완료한 시기를 기준으로 삼은 결과이다. 이제 거제성은 성곽과 해자를 갖춘 읍성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고정리 지역에 자리잡은 새 치소는 조선 현종 5년(1664)에 거제현의 옛 속현이었던 明珍縣 지역으로 이동될 때까지²⁸⁾ 200년 남짓 읍치로서 거제현의 행정과 군사,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였다. 이처럼 세종 4년 거제현이 복구된 후, 그 치소는 수월리에서 사등리로, 다시 사등리에서 고정리(고정부

26) 『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鄭宋啓曰, “...遣李較然于忠淸道, 築瑞山城. 且已築城慶尙道昆陽·機張·東萊·固城·巨濟, 則未鑿海子. 鎭海·河東, 則未築敵臺. 全羅道興陽·順天·光陽, 則未築擁城. 請令本邑鑿築.” 從之.」(『단종실록』 권 2, 단종 즉위년 8월 1일 신유)

27) 『遣兼知兵曹事金淳于慶尙道, 監築巨濟城.」(『단종실록』 권 7, 단종 1년 8월 26일 경술)

28) 『여지도서』 거제현 건치연혁에는 康熙 甲辰年, 즉 현종 5년(1664)에 명진폐현의 서쪽 3리 지점으로 치소가 이동되었다고 했는데, 이 해 윤6월 13일에 경상감사 李尙眞이 당시 치소로부터 서쪽으로 20리 떨어진 명진촌으로 치소를 옮길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치소 이동을 건의한 배경으로는 당시 읍치의 물과 토질이 나빠서 병으로 사망하는 관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慶尙道巨濟縣水土甚惡, 官吏多病死. 監司李尙眞啓請移邑於本縣西距二十里明珍村.』(『현종실록』 권 8, 현종 5년 윤6월 13일 계유).

곡)로 이동되는 등 세차례의 치소이동이 있었다. 치소가 설정되는 곳마다, 목책이나 성곽시설, 관사와 부고 등이 설치되어 치소로서 행정시설을 갖추었다.

거제현이 복구된 후 그 치소는 모두 거제도의 동부 해안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고려시대 치소가 그 서부지역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조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제 지역사회는 주민의 분포, 재지세력의 근거지 이동, 행정과 교통망의 구축 등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 고정부곡 등 부곡제 지역이었던 곳이 조선시대에는 거제현의 치소로서 지방행정의 중심지가 되는 등 지역 사회 변동의 폭이 컸다.

치소 이동 때마다 축조되었던 읍성의 호칭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거제 지역의 마지막 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고정리의 읍성을 ‘古縣城’ 또는 ‘고현읍성’으로 지칭하고 있다. ‘古縣’의 의미는 조선시대 면리제 하에서 이곳이 ‘고현면’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소재지를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현종 5년 명진현으로 치소가 이동되면서 옛 치소가 자리잡았던 고정리 지역이 ‘고현’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명진현 지역으로 치소가 이동된 뒤 편찬된 『여지도서』 등 지리서나 『읍지』에서 이를 ‘고현성’이라 부른 연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단계의 고현성은 앞서서도 보았듯이 고정리 읍성이 아니라 사등성이다. 1656년에 간행되는 『동국여지지』에서도 아직 치소가 고정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縣城’, 사등리성을 ‘古縣城’으로 지칭하고 있다.²⁹⁾ 명진현 지역(명진리)으로 치소가 이동된 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서는 이들이 모두 고현이 되었기 때문에 성지조에 고현성이 있고, 고적조에도 사등리성을 가리키는 고현성이 들어있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³⁰⁾ 『읍지』 등에서는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고정리성은 ‘고현성’으로, 사등리성은 ‘사등성’으로 정리했다.³¹⁾

치소 이동이 있었던 지역이면 어느 곳이든 ‘고현성’이라는 칭호는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각종 지리서에서는 수많은 지역에서 고현성 또는 고

29) 「縣城 石築 周三千六百三十八尺 高十三尺 有門 城內有三泉二池 魯山初築」(『동국여지지』 권 4하, 경상도 거제현 성곽). 「古縣城 在縣西十七里 石城 周二千五百十尺 金皆頽圯 本朝文宗時 爲縣乏水泉 遣贊成鄭某 擇地移邑 卽今治 其地稱爲古縣城」(『동국여지지』 권 4하, 경상도 거제현 고적).

30) 「古縣城 在府東北二十里 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一泉一池」(『여지도서』 경상도 거제현 성지). 「古縣城 卽沙等城 在府北二十里 石城 周二千五百一十一尺六寸 高九尺」(『여지도서』 경상도 거제현 고적).

31) 「沙等城 在府北二十里 周一千八百九尺 高十三尺 內有一井 古縣城 在府東二十里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一井一池」(『거제부읍지』 성지)

읍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고려시대의 치소성이었다. 여말선초 사회변동 과정에서 치소가 이동되면서 고현성 등의 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거제 고현성의 경우 이렇게 불리도 그 호칭에서 읍성이었음을 읽어낼 수는 있겠지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고정리 읍성을 고현성이라 부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명진리로 치소가 이동된 후 읍성을 축조하지 않았다는 점³²⁾을 감안하면, 지금 시점에서 고정리성을 ‘고현성’이라 지칭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 단계에서의 호칭을 존중하여, 고정리성의 경우 ‘고현성’이 아니라 ‘巨濟邑城’으로 지칭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거창의 속현 가조현으로 이동했던 거제현은 조선 건국 후 세종 4년에 거제도로 복구되었다. 이동한지 1세기가 훨씬 지난 시기로, 조선초海道정책의 변화와 거제 지역의 주민 확충에 따른 복구 조치였다. 거제현을 복구하면서 치소가 된 곳은 거제도의 동부에 해당하는 수월리 지역인데, 이곳을 치소로 삼은 것은 이 시기 주민들이 이곳에 다수 분포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전 고려시대 치소였던 서부지역이 대마도 정벌을 준비하는 등 군사 거점 지역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월리 치소에는 목책만 설치했을 뿐 성곽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수해 위험이 있는데다 농토가 협소하고 왜적의 선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적변에 노출되어 있어 치소 이동이 불가피 하였다. 마침내 거제현이 복구된지 3년만인 세종 7년 2월부터 치소 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현지 조사도 실시되었다.

치소를 이동할 후보지로 처음에는 고려시대 치소 지역이 거론되었으나, 현지 조사 후 사등리로 결정되었다. 이 곳은 주민들의 거주지와 농토 밀집 지역이었고, 적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섬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그 입지로 선정된 것이었다. 이곳에는 뒷날 사등성이라 일컫는 읍성도 축조되어 둘레 2,510여 척, 높이 9척의 규모를 보이고 있었다.

³²⁾ 『今治 無城』(『거제부읍지』 성지)

오랜 시일이 걸려 치소 사등리를 중심으로 읍성을 축조하고 관아시설을 마쳤음에도, 또 다시 거제의 치소를 이동시키자는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등성의 규모가 적어 주민들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처음에는 사등성을 증축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문종 즉위년 鄭某의 현지 조사 보고를 거치면서 사등성 증축보다 치소 이동과 새 읍성의 축조로 귀결되었다.

새 치소는 이전 고정부곡이었던 고정리로 결정되었다. 정분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이곳은 지세가 넓고 평평하며, 골짜기가 깊숙한 데다, 우물과 샘을 갖추고 있으며 경작지와 주거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치소의 적지로 평가되었다. 치소 이동이 논의되기 시작하자 거제 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치소 이동과 읍성 축조에 따른 부담, 재지세력의 이해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제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국왕은 의정부 재상들과 이 문제를 협의한 후, 새 읍성 축조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문종 1년 가을까지 치소 이동과 축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치소의 시설과 읍성 축조는 곧 개시되어 영천, 진주 등 인근 지역의 역부 2만여 명을 동원, 이 해 11월 마침내 읍성이 완공되었다. 고정리 거제읍성은 둘레 3,600여 척, 높이 13척의 규모에 성문과 옥사 40여 간을 갖추고 있어서 사등성보다 훨씬 큰 규모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세종 4년 거제현이 복구된 후, 그 치소는 수월리에서 사등리로, 다시 사등리에서 고정리로 이동되는 등 세차례의 치소이동이 있었다. 치소가 설정되는 곳마다, 목책이나 성곽시설, 관사와 부고 등이 설치되어 치소로서 행정시설을 갖추었다. 거제현이 복구된 후 그 치소는 모두 거제도의 동부 해안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고려시대 치소가 그 서부지역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조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제 지역사회는 주민의 분포, 재지세력의 근거지 이동, 행정과 교통망의 구축 등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 투고일 2011년 7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1년 8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30일 ■

참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거제부읍지』, 『敬齋先生文集』 『佔畢齋文集』.

동아대학교박물관, 『巨濟烏壤城址』(1994) ; 『巨濟市文化遺蹟精密地表調查報告書』(1995) ; 『巨濟市城址調查報告書』(1995) ; 『巨濟鵝洲洞遺蹟』(1998) ; 『巨濟巨林里遺蹟』(1997).

심봉근, 『한국 남해연안 성지의 고고학적 연구』, 학연문화사, 1995.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文化遺蹟分布地圖-巨濟市』(2005) ; 『文化遺蹟試掘調查報告書-巨濟廢王城-』(2006) ; 『거제 아주동 공동주택 건축부지내 유적-巨濟鵝洲洞古墳群-』(2007) ; 『巨濟廢王城蓮池發掘調查 略報告書』(2007).

거제시지편찬위원회, 『거제시지』(역사편), 2002.

강돈목, 「거제지역 지명연구」, 『어문연구』 35, 2001.

강봉룡, 「한국 해양사의 전환-해양의 시대에서 해금의 시대로-」, 『도서문화』 20, 2002.

김광철, 「고려후기 거제 지역사회의 변동과 거제현의 이동」, 『석당논총』 46, 2010.

박종기, 「『고려사』 지리지 역주(6)-진주·합주편」, 『고려시대연구』, 2006.

송철호, 「거제의 연혁과 문화」, 『한국문화연구』 6, 1993.

신명호, 「조선초기 중앙정부의 경상도 해도정책을 통한 공도정책 재검토」, 『역사와 경계』 66, 2008.

심봉근, 「거제 고현성지연구」, 『석당논총』 17, 1991.

심봉근, 「거제도 성지」, 『석당논총』 31, 2002.

윤경진, 「고려말 조선초 교군의 설치와 운영」, 『한국문화』 40, 2007.

이일갑, 「거제 고현읍성연구」, 『석당논총』 37, 2005.

최영호, 「13세기말 거제현의 출륙배경에 대한 검토」, 『석당논총』 31, 2002.

최종석, 「고려시기 치소성의 분포와 공간적 특징」, 『역사교육』 95, 2005.

Abstract

The Restoration of GeojeHyeon(巨濟縣) and the Movement of Chiso(治所) in the Early Joseon Dynasty

Kim, Gwang-Chul

GeojeHyeon(巨濟縣) was abolished in the late Goryeo, and was moved into GajoHyeon(加祚縣) far away from GeojeDo(巨濟島). The time of movement was from the end of Wonjong(元宗) to the early King Chungryeol(忠烈王). The movement of GeojeHyeon was caused by the Sambyeolcho(三別抄) resistance and the strict restrictions of government.

GeojeHyeon was return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fter 150 years from the movement. GeojeHyeon moved into GajoHyeon was restored into GeojeDo in the fourth year of King Sejong's reign(1422). When GeojeHyeon was restored, the Chiso(治所 ; administrative office) was located in SuwueolRi(水月里), the east GeojeDo. Its Chiso was equipped with a wooden fence, but lacked castle for administrative office in province.

After GeojeHyeon was restored, the Chiso was moved in two separate occasions on 1426 and 1451. The second Chiso was moved into the SadeungRi(沙等里) in the eighth year of King Sejong's reign(1426). In this place, built a castle named as SadeungSeong(沙等城). The circumference of wall was 2,511 cheok(尺) and the height of it was 9 cheok(尺).

By the way, the Chiso of SadeungRi was moved into GojeongRi(古丁里) again in the first year of King Munjong's reign(1451). The reason of movement was because SadeungSeong's small and there is not enough

water. On the other hand, the Chiso of GojeongRi had a large expanse of plains with the abundance of water. The Eupseong(邑城) located on the GojeongRi was equipped with wall, castle gate and jail of about 40rooms. The circumference of wall was 3,638 cheok(尺) and the height of it was 13 cheok(尺).

As mentioned above, after GeojeHyeon was restored, the Chiso was moved from SuwueolRi into SadeungRi, from SadeungRi into GojeongRi. The Chiso was located in the east coast of GeojeDo. It shows, through change the Goryeo Dynasty into the Joseon Dynasty, the distribution of resident, the movement of the stronghold of community leader, the administration and the traffic network was changed in the Geoje(巨濟) community.

Key Words : Geoje Hyeon(巨濟縣), GajoHyeon(加祚縣), GeojeDo, SuwoulRi(水月里), SadeungRi(沙等里), GojeongRi(古丁里), SadeungSeong(沙等城), Eupseong(邑城), Movement, Chiso(治所), movement of Chiso.

